



St
KIM
andrew

St. Andrew Kim Dae Gon Korean Catholic Church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4/24/2022

22-18

Add: 4750 Challen Ave., Riverside, CA 92503 Tel: 951-533-0580 Email: standrewkim@sbdiocese.org Website: www.standrewkimchurch.org

(백)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
(Wh) 2nd Sunday of Easter, Sunday of Divine Mercy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Have you come to believe because you have seen me?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yet seen and believed.”

요한 20,29 / Jn 20:29

본당 주임 신부님(Pastor)

김대선 바오로, MSC
Rev. Paul Kim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Sunday Mass

한국어 / Kor. 10:00 am
영어 / Eng. 3:00 pm

English Mass Celebrant: Fr. Ted Drennan

평일미사 / Weekday (Korean)

화/Tu 7:30 pm
수/W 10:00 am
목/Th 10:00 am
금/F 7:30 pm

성시간 / Eucharistic Adoration

첫 금요일 / 1st Friday 8:00 pm

첫 토요일 신심미사 / 1st Saturday Devotion

첫 토요일 / 1st Saturday 10 am

고해성사 / Confession

미사 30분전

(30min. before mass)

병자성사 / Anointing of the Sick

사무실 문의/Call Office

유아세례 / Infant Baptism

사무실 문의/Call Office

혼배성사 / Marriage

사무실 문의 (6 개월전 신청) / Call Office (6 months advance)

사무실 업무 시간

Office Hours

일/화/목/금

Su/Tu/Th/F 9:00am-4:00pm

월/수/토 휴무 M/W/Sat Closed

(Until 11/30 Temporary Schedule)

본당 연락처 (Parish Contact)

사무실 (Office)	951-533-0580
총무 (Pastoral Council)	전도미니코 (Dominik Jun) 714-458-4829
연령회 (Senior Ministry)	이마태오 (Matthew Lee) 951-733-0389
전례분과 (Liturgical Ministry)	김마지아 (Matias Kim) 303-882-7022
주일학교 (Religious Ed)	송세실리아 (Irene Song) 951-346-6151

구역장 (Territory Leaders)

	(총구역장)	
지식	윤(심포로사)	951-966-5868
지혜	임(유스티나)	951-235-1619
통달	현(마리안나)	909-767-8155
의견	김(로사)	909-297-0809
굳셈	손(테레사)	805-407-5403
효경	정(바올리나)	951-454-3182
경의	김(테레사)	951-751-5696

교황님 기도 지향 (Pope's Intention)

4월 / April

보건 의료 종사자들

특히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아픈 이들과 노인들에게 봉사하는 보건 의료 종사자들이 정부와 지역 공동체의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For health care workers

We pray for health care workers who serve the sick and the elderly, especially in the poorest countries; may they be adequately supported by governments and local Communities.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 (다해)

2nd Sunday of Easter, Sunday of Divine Mercy (Year C)

【입당송 / Entrance Antiphon】 1베드 2,2 / 1Pt 2:2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여라. 너희는 그 젖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Like newborn infants, you must long for the pure, spiritual milk, that in him you may grow to salvation, alleluia.

【제1독서/First Reading】..... 사도 5,12-16 / Acts 5:12-16

【화답송 / Responsorial Psalm】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is everlasting.

【제2독서 / Second Reading】..... 묵시 1,9-11L.12-13.17-19 / Rev 1:9-11a, 12-13, 17-19

【복음 환호송 / Gospel Acclamation】

◎ 알렐루야. Alleluia, alleluia.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You believe in me, Thomas, because you have seen me, says the Lord;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me, but still believe! ◎

【복음 / Gospel】+ 요한 20,1-9 / Jn 20:1-9

【영성체송 / Communion Antiphon】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 렐루야.

Bring your hand and feel the place of nails, and do not be unbelieving but believing, alleluia.

미사지향(Mass Intention)

Date/Time	4/24 10am	4/24 3pm	4/26 7:30pm	4/27 10am	4/28 10am	4/29 7:30pm
연미사(D)	이미카엘,김율리안나,유시몬 신부님,민병애 마리아 막달레나, 김대식 베드로,이불케리아, 이웅렬 요한, 안요왕,박바드리시아,채말기 모니카,변정창 마리아, 신바로,김아네스,조재인 홍마리아고레띠,주윤철 미카엘	Charles Angel Julie Fennel	이미카엘 김대식베드로 홍마리아고레띠	이미카엘 김대식베드로 홍마리아고레띠	이미카엘 김대식베드로 홍마리아고레띠	이미카엘 김대식베드로 홍마리아고레띠
생미사(L)	박정대 그레고리,박정문 제임스, 김리디아,김세례자 요한,김다니엘, 이도미틸라,이미자 테레사&조앤, 박우슬라 가정,이디모테오&카타리나,현마리안나 가정, 강프란치스코&마리아,제대회, 박안셀모					

*** 미사지향 신청은 일주일 전에 신청 바랍니다. 여기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 해주십시오.
Please request mass intention in a week advance. Let us all pray for the intentions.

주님 부활의 의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은 무척 무기력해 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활 3년을 의기 양양 하게 활동하던 제자들은 주님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이끌어주셨던 예수님이 순식간에 자신들의 삶속에서 살아져 버렸으니,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마땅하겠지요.

주간 첫날 저녁, 절망과 미래의 두려움의 기운이 짙게 맴도는 집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못자국이 선명한 양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몇 일전 십자가상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순간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오전에 마리아 막달레나로부터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소식과 믿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어리둥절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다니, 기쁨과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듭니다.

못자국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통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제자들에게 안심시키고 평화의 인사를 건네시고, 숨을 불어 넣으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더욱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하느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주님이 부활로 인간에게 진정한 평화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 하느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먼저로 사람을 만드시고 숨을 불어 넣으신 것(창세:2.7)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새롭게 탄생 시킵니다. 숨 즉, 생명의 불어 넣음으로서 죽음에서 새롭게 된 인간으로 우리들은 태어납니다. 세 번째, 성령을 받아들임으로서 주님과 새롭게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정한 평화의 시작과 인간을 죽음에서 자유롭게 만드시고, 성령을 통하여 늘 주님과 일치할수 있게 만드신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전의 인간의 삶은 평화가 없는 죽음 그 자체로 끝이 났으나, 주님의 부활로서 우리는 죽더라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기쁨을 누리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2의 아담 창조 인 것이지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신 것은 주님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었던 저희들에게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아로 두지 않겠다!(요한:18,14)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확인 한다는 것은 토마 사도와 같이 자신의 감각과 이성으로 확인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마치 자신의 ‘만족의 잣대’로 하느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품지 않고 단순히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십니다.

The Implications of the Lord's Resurrection

The disciples felt hopeless after the death of Jesus. They were proud to be with Jesus' 3 years of public life, but they lost everything after losing Jesus. Jesus led their lives, but he was gone. No wonder they were in despair.

On the evening of the first day of the week, Jesus comes to the house gloomed with despair and fear. "Peace be with you." He said. He showed them his hands and side wounded by nail and spear and revealed his reborn form. How astonished would the disciples be! They heard from Mary Magdala about Jesus' body missing and a talk about Jesus' resurrection. Now, they could see Jesus' resurrection with their eyes, and they must have been filled with joy and fear.

Jesus comforts the disciples by giving a greeting of peace, showing his hands and side, and breathing on them, saying, "Receive the Holy Spirit." Such acts of his are somewhat unexpected. Still, his deeds have profound implications. Firstly, Jesus' resurrection brings true peace to the world. Secondly, Jesus makes the disciples reborn, as God gave life to Adam by blowing the breath of life (Genesis 2:7). By accepting God's breath of life, we are reborn from death. Lastly, receiving the Holy Spirit means our life being together with the Lord. Jesus' resurrection brings true peace, frees humans from death, and sends the Holy Spirit to be with the L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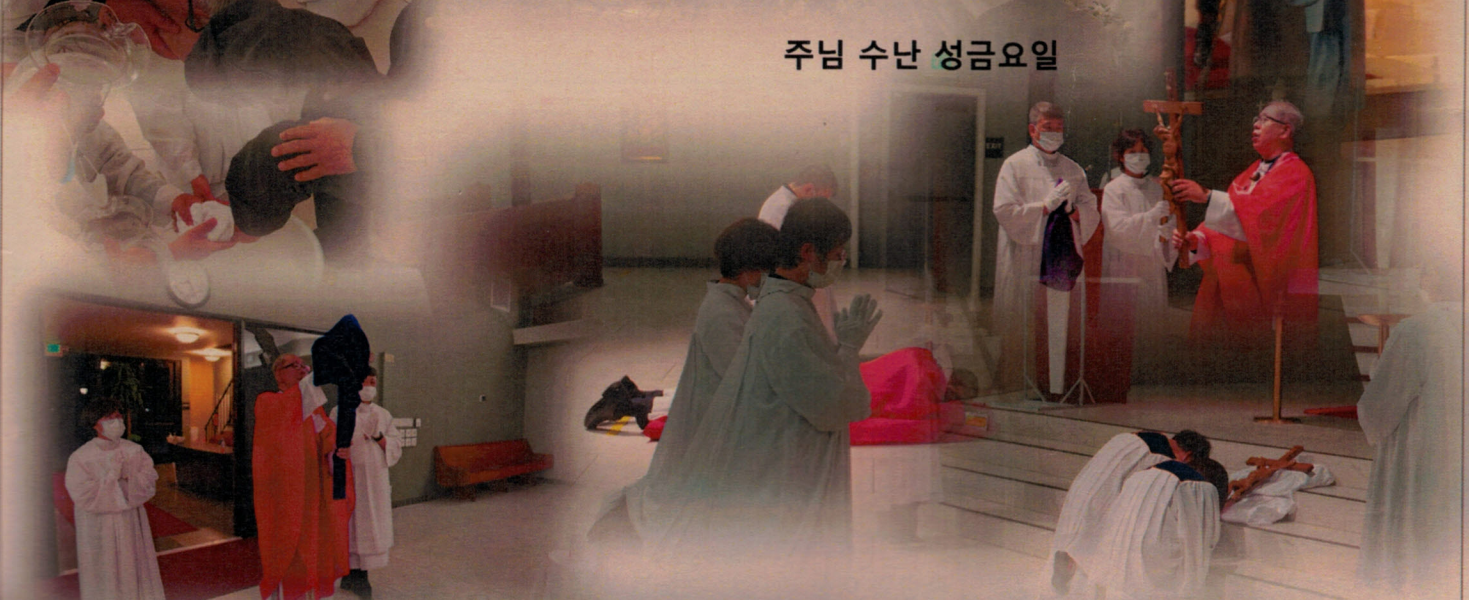
Human life used to end by death before Jesus. However, Lord Jesus' resurrection became an example that we can have the joy of being reborn after death. The resurrection is another creation of Adam. Jesus' sending the Holy Spirit is a promise to us, the fragile, that he will always be with us. It is the promise he made, "I will not leave you orphans." (John 14:18)

Thomas, the disciple, accepted Jesus' resurrection only after verifying with his senses and rationale. This approach may lead to us trying to judge God by our standards. Instead, Jesus teaches us the importance of believing without doubts.

주님 만찬 성목요일



주님 수난 성금요일



파스카 성야



전례봉사 (Liturgical Server)

Date Mass Time	해설/ Narrator	독서/ Readers	전례부/Altar Server	반주/Organist	봉헌/ Offertory
4/24 Sun 10am	최안들레아	신모니카, 김세실리아	오미카엘라, 박아가다	김스콜라스티카	
3pm		Ester Le Blanc Fred Garcia	최클라라	Juliana Cho	Antoinette A. Cecilia Cosme
4/25 Mon	No Mass				
4/26 Tue	김소화데레사		박아가다	조율리안나	
4/27 Wed	박분도		안세실리아	김미카엘라	
4/28 Thurs	변리오바		최클라라	김미카엘라	
4/29 Fri	김소화데레사		김마지아	조율리안나	
4/30 Sat	No Mas				
5/1 Sun 10am	박세실리아	임유스티나, 손데레사		강실비아	
3pm				Juliana Cho	Antoinette A. Cecilia Cosme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태경소경을 치유해 주시면서 '이는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일들이 그에게서 드러나기 위한 것입니다.(요한 9,3)'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우리나라 주변이 겪는 비극이 누구 탓인지를 가리느라고 에너지를 엄청 소모하는 경향이 있다. 부모 탓인가? 내 자신의 탓인가? 이러 저러한 단체 탓인가? 교회의 탓인가? 이렇게 꼽아 보다가 누군가의 탓으로 마침내 그럴듯하게 지적해 내고는 묘한 만족을 느끼는 습성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자신의 문제나 주변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탓으로 규명하는 방식으로는 처리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혼란과 어둠 속에서 하느님의 빛을 발견하라고 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비극의 극치 안에서조차도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누군가의 탓으로 돌려야만 시원한 그런 문제해결방식에서 하느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내 사고의 틀을 바꾸어 갈 수 있다면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큰 상관없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나름대로의 비극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죽음, 우울, 배반, 배척, 가난, 이혼, 상실등 여러 비극이 있다. 이런 비극 앞에서 누구의 탓인지를 규명 하느라 급급한지, 아니면 그 비극 안에서 하느님의 일을 목격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자 하는지를 찬찬히 헤아려 봐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역시도 끝없는 인간 비극의 여사였었다. 그러나 이런 비극들을 하느님의 무한하시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발견하는 계기로 삼았었기에 비로소 거룩한 역사요, 그세사 그리고 성경이 되게 되었던 것이다.

본당소식 / Parish News

- ◆ 故홍마리아고레띠 자매님 장례일정
연도: 오늘(4/24(일)) 10시 미사 후
장례미사: 4/26(화) 오전 10시 (성 김대건 성당)
하관예식: 4/26(화) 오후 12시
장 지: Good Shepherd Cemetery And Mausoleum
8301 Talbert Ave., Huntington Beach, CA 92647
- ◆ 4/26 화요일 평일미사
장례미사 관계로 이날 7:30pm 미사는 없습니다.
- ◆ 성시간 / Eucharistic Adoration
일시(Date/Time): 5/6(금/Fri) 8pm
- ◆ 성모의 밤 (Crowning of Mother Mary)
일시(Date/Time): 5/7(토/Sat) 7:30pm
- ◆ Bishop's Dinner (주교님의 만찬)
일시(Date/Time): 5/14(토/Sat) 5pm
장소(Place): JW Marriott 74-855 Country Dr. Palm Desert
회비(Cost): \$250
4/24까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 20. 29

Have you come to believe because you have seen me?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and have believed. Jn 20,29

십자가의 길 (Stations of the cross)



우리들의 정성 Weekly Contributions

주일헌금/Plate	부활 휴무관계로 4/17 우리들의 정성은 5/1주보에 공지 됩니다. (4/17 Weekly Contributions will be published on 5/1 Bulletin.)
교무금 Envelope	
교구발전기금 DDF	
합계 Total	

주보광고 / Bulletin Ad

Acupuncture Natural Healing Center

(유수 한의원)

Why live with pain?

Byung Chan Kim L.Ac (Mathias)

10600 Magnolia Ave Ste F, Riverside, CA 92505

Office: (951)688-8837

Ortiz Tree Service

Commercial & Residential & Industrial

Office: 714 - 639-7363

Cell: 714 - 402-7081

ortiztreeservice@gmail.com

북경 (PEKING)

CHINESE RESTAURANT

951-687-4822

11170 C Magnolia Ave., Riverside



Tel: 951-207-5339

P.O Box 51397

Riverside, CA 92517

www.Antexpest.com

Complete Pest Control Service

광고문의 (Bulletin Ad)

951-533-580

광고문의 (Bulletin Ad)

951-533-580

광고문의 (Bulletin Ad)

951-533-580

교리상식 101

13. '신자들이 더 이상 옛날처럼 전례에 쓸 빵과 포도주를 집에서 가져오지는 않을지라도' 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가져와서 성찬 준비를 할 수 있나요?

성찬례 때 사용하는 "빵은 순수한 밀가루로 빚고 새로 구워 부패의 위험이 전혀 없어야 한다. 포도주는 포도로 빚은 천연의 것으로 부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회법 제824조)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미사에 참례하는 신자가 개인적으로 가져온 빵과 포도주를 성체 축성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미사 경본 총지침』 '제대와 예물 준비' 부분에서 언급된 내용은 예물 봉헌의 역사적 전통과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최후의 만찬 때, 그 시대 누구나 먹소 마시던 빵과 포도주로 성체성사를 세우셨기에 교회 공동체는 빵과 포도주를 성체성사를 이를 음식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던 빵과 포도주를 가져와 미사 예물로 바쳤습니다. 세월이 지나 영성체를 하는 신자 수가 많아지자 빵과 포도주 대신 지금 같은 제병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참조: CBCK 신자 재교육 교리 상식 1